

TOGETHER Harim



깨진 유리창 이론

유리창이 깨진 것처럼 작은 잘못을 방치하면
후에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는 1969년에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도 없는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부품을 훔쳐가고 더 이상 훔칠게 없자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 버렸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이 실험에 착안 하여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범죄학자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에 처음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 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붙였습니다.

02	기획포커스 시사 상식 사전: 심리편 목차	13	MZ생각 미래를 설계하는 MZ세대	19	비즈니스 잉글리쉬
04	트렌드 리포트 이달의 트렌드는?	14	하림인 이야기 가정의 달	20	눈으로 보는 하림
06	농가 탐방 은성농장	16	전국 닭 요리 울산-아키토리 명성	22	프라임대리점 선진지 견학
08	하림 뉴스 2025년 4월	18	슬기로운 MZ생활	23	쉽게 보는 하림 용어 사전 이달의 퀴즈



Date of Issue
 2025년 5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www.harim.com

간편 한끼족, 한끼는 닭가슴살로!

건강하고 편리하게, 든든하게



한국인의 식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부모님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 하나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일 정도로, 기운 없이 축 처진 사람에겐 “밥심이 최고다. 밥 굶지 말고 대려라”는 말로 위로를 건넬 정도로 밥을 중요시하는 게 한국인이다. 그렇게 쌀로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중요시하던 밥상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세 끼 식사 대신 가볍고 간편하면서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닭가슴살은 건강한 한끼를 챙기려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그 인기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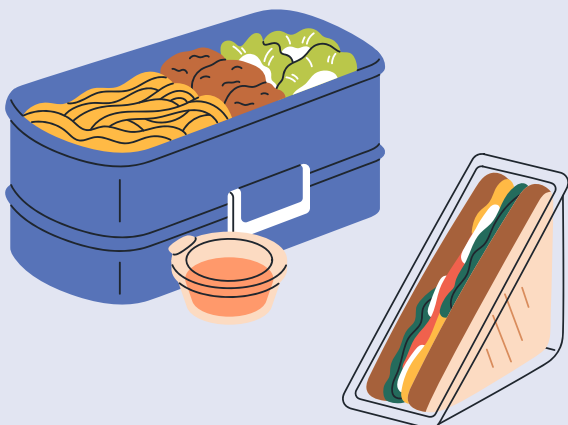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5.7kg로 집계됐다. 2003년 7.8kg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량이 2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연간 16마리(1kg 기준)의 닭고기를 소비한 셈이다. 닭고기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매우 중요한 식품으로 꼽히는데, 닭다리·안심·가슴살 등 부분육 인기에 힘입어 닭고기 소비가 취향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가장 적으면서 단백질은 가장 많아 건강을 추구하는 일반인 수요가 늘고 있다.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트렌드와 식사에 대해 변화하고 있는 현대인의 마인드, 소비패턴이 닭가슴살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균형 잡힌 상태나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인 웰니스(Wellness), 건강(healthy)과 즐거움(pleasure)을 추구하는 트렌드인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등 건강에 대한 트렌드 열풍이 이어지면서 닭가슴살에 대한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실 틈 없이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가벼운 한 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강과 간단함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닭가슴살을 원물 그대로 즐기는 것을 넘어 소시지, 햄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닭가슴살을 애용하는 소비자가 이전에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보디빌더나 다이어터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일상식에서도 닭가슴살을 즐기고 있다. 하루 한 끼는 닭가슴살을 이용해 건강과 영양을 함께 챙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도 다변화하는 시장, 소비자의 니즈를 겨냥해 다채로운 닭가슴살을 선보이고 있다. 2019년 냉장 닭가슴살 4종 출시를 필두로 닭가슴살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단백질 함량, 칼로리 등 영양학적인 특징 이외에 맛에 신경 쓰기 시작한 소비자들을 위해 촉촉함이 무기인 ‘수비드 닭가슴살’, 부드러운 식감과 소스로 맛을 더한 ‘맛닭가슴살’ 등을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한입에 먹기 좋게 큐브 형태로 닭가슴살을 밀감한 ‘IFF 큐브 닭가슴살’, 소비자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닭가슴살 소시지’와 ‘닭가슴살햄 참’, 맛있게 스낵으로 즐기는 ‘오늘단백 프로틴바’, ‘오늘단백 라떼’ 등으로 골라 먹는 재미와 신선함, 맛,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고 있다. 엠브레인 빅데이터 기준, 우리 회사는 2024년 국내 냉장 닭가슴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간편하고 건강한 한 끼, 닭가슴살을 애호하는 트렌드는 장기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대 사회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성 중시 문화’가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식사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다. 세 끼 식사 대신 가벼운 간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스낵키피케이션(Snackification), 식사의 간식화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스낵의 선택 기준에서도 ‘건강’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건 다른 트렌드와 비등하다. 간편 식사도 좋지만 균형 잡힌 영양 식사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내 한 끼는 어떤 것으로 계획 중인가? 건강함과 맛, 편리함까지 챙기고 싶다면, 오늘 저녁 닭가슴살로 한 끼를 똑똑 챙겨보는 건 어떨까?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정성과 책임으로 닭을 기릅니다

은성농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는 '부안군 깨끗한농장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진 '은성농장'이 있다. 동물복지, 무항생제, HACCP인증을 모두 갖춘 이 농장은 조외숙(65) 대표의 정성과 철학이 깃든 공간이다. 2014년부터 육계 사육을 시작한 그녀는 현재 둘째 아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며, 위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을 실현해가고 있다.



Q. 육계농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남편의 고향인 전북 부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안군청 측에서 돼지 사육을 권장했으나, 제가 구입한 부지가 오리 농가였기 때문에 돼지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육계 사육을 결정하게 되었고, 2014년 9월 은성농장을 설립하였습니다. 농장명은 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은 이름이지만, 현재는 둘째 아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환경을 갖춘 축사를 목표로 했고, 그 결과 부안군 최초의 '깨끗한농장 1호'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하림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계약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림의 사료 품질과 유통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높아, 오랜 기간 하림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T/O가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2024년 운 좋게 기회가 생겨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림과의 계약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사료 품질에 따른 내부 환경의 개선입니다. 사료가 좋으니 분변 상태도 안정되고, 바닥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영업망과 관리·감독 시스템 덕분에 농장주는 오로지 사육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Q. 동물복지에 대한 철학이나 운영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은 모두 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유기견을 키우고 있으며, 닭을 사육할 때도 단순히 상품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닭은 다른 동물에 비해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이 쉽게 드는 동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편안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귀하게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추 수 제한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일부 있지만, 윤리적인 축산이라는 가치와 소비자의 선택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구서·구충¹⁾ 등 주변 환경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매일 직접 축사에 들어가 사육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구서, 구충: 쥐나 벌레를 잡아 없애는 일

Q. 동물복지 인증 이후 생산성 변화나 소비자 반응은 어떠했나요?

현재 농장은 2개 동으로 운영 중이며, 각 동은 약 500평 규모입니다. 입추 수는 평균 4만6천~4만8천 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후 생산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 안정성과 브랜드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림과 함께 기대하는 점이 있나요?

현재 농장은 시스템이 거의 완비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증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ICT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 안에 은퇴하여 전원생활을 즐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후 농장은 둘째 아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림에는 앞으로도 농가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계약 구조를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닭을 기른다는 건, 생명을 책임진다는 일입니다. 단순한 사육을 넘어 '키운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대중 사이에 남아 있는 축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동물을 기른다"는 일이 곧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식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생, 환경, 기술 등 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앞으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책임감 있게 공급하는 축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01

CEO와 산행하며 소통하고 공감해요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

우리 회사는 지난달 16일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서 정호석 대표이사와 임직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CEO와 함께하는 미륵산 산행'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임직원간 세대별 가치관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 소통 문화 활성화를 위해 준비됐다.

우리 회사의 'CEO와 함께하는 미륵산 산행' 행사는 임직원들이 미륵산 숲길을 함께 걸으며 상호 소통하고 조직 간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직원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공감하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해 좀 더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산행에 함께한 홍보팀 김봉균 사원은 “사장님과 숲길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간에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02

식목일 맞이 '자생 식물 식재 봉사' 펼쳐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보전 및 복원에 앞장

우리 회사가 식목일을 앞두고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찾아 생물 다양성 확대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 단지 지역에 자생식물(야생화) 식재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2월 하림과 국립공원공단-전북지방환경청이 ESG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첫 번째 실행 프로그램으로 하림 임직원 30명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 환경생태팀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 진행됐다.

생태단지 내 암석원 부지 일원에 원추리, 할미꽃, 금평의다리 등 23종 542개체가 식재가 이루어졌다. 암석원 부지는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내 다양한 생물 서식 공간 조성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 3



월 초 조성된 지역이다.

새만금환경생태단기관리단에서는 이번에 식재된 자생식물 육묘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분양받은 종자와 모종을 묘포장 하우스에서 자체 증식시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하림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와 바이오가스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환경을 보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03

23년째 믿고 먹는 1등 닭고기, 다채롭게 즐겨요

23년 연속 1위 기념 프로모션 진행



우리 회사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냉장·생동육 부문 23년 연속 정상을 차지한 것을 기념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아 1위를 수상했다. 브랜드 파워 1위 수상 기념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펼쳤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하림몰과 쿠팡 등의 채널에서 특별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이마트 및 롯데마트 등에서 브랜드 모듬 행사를 통해 사은품 행사 등을 열었다.

Fresh HMRBM 김동휘 팀장은 “오랜 기간 하림을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1999년 개발한 국내 최초의 브랜드 평가 모델이다.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의 제품·서비스는 물론 브랜드 경쟁력까지 측정하여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03년부터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올해도 명실상부한 업계 리더 자리를 공고히 했다.

새내기자 | 남다빈 사원

04

“고강도 미션에 필요한 에너지, 오!늘단백으로 채워요”

‘피지컬500’ 강릉 머슬비치 행사에 오!늘단백 지원



우리 회사는 지난달 19일 강원도 강릉 강문해변 머슬비치에서 열리는 피트니스 서바이벌 대회 ‘피지컬500’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피지컬500’은 국내 피트니스 브랜드 ‘삼대오백’이 주최하고, ‘세인트존스호텔 강릉’과 국내 밀리터리 컨설팅 업체 ‘티어원브로스’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이다.

TV 프로그램 ‘강철부대’ 마스터 교관으로 잘 알려진 최영재 티어원브로스 대표가 설계한 실전형 코스에서 체력과 순발력, 지구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미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총 우승상금 1천만원에, ‘피지컬100’ ‘강철부대’ ‘강철부대W’ 출연진이 교관으로 참여해 반응이 뜨거웠다.

우리 회사는 탁 트인 자연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번 대회 공식 후원사로서 참가자 전원에게 ‘오!늘단백’ 단백질 음료 3종과 단백질바 2종을 지원했다.

우유 단백질(동물성), 대두 단백질(식물성), ICBP(보리닭가슴살단백질) 등 3종 복합단백질을 최적의 비율로 설계해 고강도 운동 전후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좋은 제품이다.

단백질사업팀 손혜련 사원은 “고난도 미션 수행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이 기분 좋게 긴장을 풀고 체력 회복과 에너지 충전도 할 수 있도록 달콤하고 맛있는 오!늘단백 라떼와 초코바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림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05

돌아온 일상 속 지구 환경지킴이, 지금 도전하세요~ 소비자 가족과 함께하는 '피오봉사단 12기' 모집



하림 피오봉사단 12기 모집

우리 가족의 작은 실천이
자연에게 큰 행운이 되는 특별한 활동

모 집 | 4.3.(목)~4.24.(목)
활 동 | 5월~10월, 환경 관련 브랜드 마션 진행
발 표 | 2025. 4. 30.(수) 총 10가족
신 청 | QR 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지금 바로 신청하기!!

우리 회사가 환경보호와 동물복지를 실천할 '피오봉사단' 12기 소비자 가족을 모집했다.

'피오봉사단'은 2014년 시작해 올해로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매년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하림 임직원과 소비자 가족이 다채로운 활동을 함께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오봉사단 12기 선정 시 우리 회사 닭고기와 제철 채소를 이용해 아이가 주도로 요리하는 쿠킹 클래스,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미션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10가족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림 자연실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선마케팅팀 김도훈 대리는 "피오봉사단은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친환경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12기로 선정된 분들이 아이들과 뜻깊은 활동을 함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6

프라임 농장 지정 및 현판 전달식 개최 우수 사육 시스템, 안전한 식품 과정 홍보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지난달 17일 '하림 프라임 농장 지정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프라임 농장 1호는 익산에 있는 최을 농장(대표자 최을), 2호는 정읍에 있는 이안 농장(안완순 농장)이 선정됐다.

전달식에서는 농장주에게 프라임 농장 수여증과 프라임 농장 현판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하림 프라임 농장은 하림의 우수한 사육 시스템을 널리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 선정된 곳이다.

프라임 농장은 우수한 방역 시스템 및 사육성적, 청결한 농장 관리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 선

정했다.

프라임 농장에 선정된 농장은 각종 인증 및 스마트팜 혜택 우선 적용, 프라임 농장 현판 게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프라임 농장 1호에 선정된 최을 농장주는 "그동안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프라임 농장이 되어 받게 된 수여증과 현판을 소중히 여

기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농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향후 10곳의 프라임 농장을 운영해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

새내기자 | 강승헌 사원

07

“한 마음으로 함께 뛰며 단합해요”

사육사업부,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 참여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지난달 6일 ‘군산 새만금 마라톤’에 참가해 빛나는 팀워크를 보여줬다.

사육사업부 임직원 13명은 마라톤을 위해 한 달 가량 러닝, 사이클, 헬스 등으로 체력 단련을 해왔다. 임직원들은 새만금 마라톤에서 5km, 10km 등 코스에 참가해 전원 완주에 성공했다.

마라톤 내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과시했다. 또 함께 땀 흘리고 목표를 달성하며 긍정적인 조직 문화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사육1팀 박성호 사원은 “뛰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같이 뛰는 팀원들이 있어서 끝까지 뛸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회사생활도 이번에 뛴 마라톤을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강현 사육사업부장은 “이번 마라톤 참가를 통해 협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임직원들이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더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내기자 | 강승현 사원

08

네이처델리 2분기 스킨십 데이 개최

스킨십 데이 통해 친목과 사기 진작



우리 회사 네이처델리 사업부는 지난달 17일, 18일 권역별 영양사 스킨십 데이를 진행했다.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진행된 스킨십 데이는 자연환경 속 구성원 교류와 리프레시를 통한 업무 능력 향상 및 애사심 고취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수도권은 용인 광고산, 중부권은 아산 신정 호수, 남부권은 부여 부소산 성에서 진행됐으며 영양사와 관리직을 포함해 총 113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스킨십 데이는 코스 탐방, 점심 식사, 레크레이션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네이처델리 사업부는 사업장별로 근무처가 달라 분기별 스킨십 데이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스킨십 데이에 처음 참석한 네이처델리사업부장실 김현진 사원은 “전화로만 업무를 진행했었던 영양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더 알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날 좋은 때 함께 모여 야외 활동을 하니 재충전도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네이처델리 사업부는 오는 3, 4분기에도 스킨십 데이를 열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새내기자 | 남다빈 사원

09

생명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동참 2분기 사랑의 헌혈로 업무 시작... 일상에서 ESG경영 실천



참하고 있다. 분기마다 60~70여 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부된 헌혈증서는 백혈병 아동 등 긴급 수혈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증할 계획이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혈액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헌혈 동참을 통해 이웃 사랑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다며 “지역 공동체와 함께 상생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ESG경영 실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하기 위해 △글로벌 학생 과학캠프 사업비 후원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참여 △정기적인 청소년 문화탐방 후원 △초등 장학금 도서지원 △하림피오봉사단 운영 △연말 희망나눔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오며 지역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10

튀기지 않아 더 건강하고 맛있는 '구워먹는 닭' 배달의 민족 B마트에서 판매



우리 회사가 신제품 '구워먹는 닭'을 출시하고, 배달의민족의 즉시배달 서비스 'B마트'에서 가장 먼저 판매한다.

'구워먹는 닭'은 신선한 국내산 닭 한 마리를 먹기 좋게 손질한 가정간편식(HMR)이다.

해동 과정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어 간편하며, 냉장 제품으로 신선도가 높아 육즙과 풍미가 그대로 살아 있다.

200°C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22~25분간 조리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식감을 맛볼 수 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아 깔끔하면서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에서 치킨을 간편 조리해 즐기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국내 1등 닭고기 기업 하림과 함께 '구워먹는 닭'을 선보였다”며 “외국산 닭고기로 만든 냉동 치킨이 아닌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냉장 치킨인 만큼 고기의 육질과 신선함, 맛, 그리고 가성비까지 뛰어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워먹는 닭'은 앞으로 하림 공식 온라인몰 하림몰(www.harimmall.com)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똑똑하게 투자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MZ세대

최근 몇 년 사이 MZ세대는 '올로(YOLO)', '플렉스(Flex)'와 같은 소비 중심적 문화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때 재테크는 40대 이상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주류가 바뀌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형성의 기회조차 부여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터득한 MZ. 취업도 결혼도 성공도 어려운 MZ는 금융 트렌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재테크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다. M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방식으로 재테크에 접근한다.

MZ세대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도 투자하며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또한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소수점 투자, 간편 투자 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미국 주식 투자가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MZ세대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투자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 투자(SRI), ESG 펀드 등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투자를 선호하며, 투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곳에서 투자 정보를 얻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을 추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투자 스터디 등을 통해 서로의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더불어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며, '짠테크'를 통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동시에, 투자로 자산을 증식시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자 한다.

MZ세대는 전통적인 재테크뿐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투자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재테크도 놀이처럼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친구들과 즐기는 놀이 문화 등을 재테크에 연결 짓기도 한다. 미술품과 음악 저작권 등에 투자하는 아트테크, 유명 스타나 명품가방, 아이돌 포토카드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는 리셀테크, 러닝 크루가 아닌 호재가 있는 동네를 주말 혹은 평일 저녁에 20여 명이 우르르 몰려 입장¹⁾을 다니는 임장크루 등 다양하게 재테크를 즐기고 있다. MZ세대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은 웹툰, 게임, MBTI, 팝업스토어 등 젊음층을 겨냥한 이색 리포트, 마케팅 활동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테크에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자신의 가치 실현, 사회 기여,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MZ세대. 금융 시장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MZ세대의 재테크 방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도 MZ인데 몰랐던 문화라고 불안해하지는 말자. 투자는 신중히! 건강한 투자로 나만의 가치를 똑똑하게 적절히 채워보자.

1) 임장: 부동산 물건과 주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활동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인숙 팀장 재정팀



저희 가족은 든직한 아빠, 현명한 엄마, 사랑스러운 6살 딸, 개구쟁이 4살 아들까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엄마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주는 솔로몬, 딸은 공주같이 여성스럽고 때로는 눈물도 많은 소녀, 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은 다희공주, 아들은 임다퐁(임다울퐁강아지)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ㅎㅎ

저희 가족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이벤트는 다희(딸)가 50개월이 되는 달에 배냇머리를 자르고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많았던 다희의 배냇머리가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별명이 '라퐁젤'일 만큼 긴 머리를 좋아했던 아이였지만, 기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끝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ㅎㅎ 기부 후에는 아이가 더 뿌듯해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지만, 그중 가장 큰 추억은 모두 함께 워터파크에 간 일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무서워할까 걱정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정말 잘 놀았어요. 특히 튜브를 타고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아들이 그대로 잠들었을 때는 온 가족이 박장대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ㅎㅎ

워킹맘으로서 힘든 순간이 많지만, 아이들의 응원과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든직한 우리 신랑 늘 함께해 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딸과 아들이 지금처럼 밝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게. 사랑해 ♥

박상희 사원 공무팀(정음)



저희 집은 든든한 아버지, 사랑과 정성으로 가정을 돌보시는 어머니, 외젖한 형, 밝고 활기찬 막내인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과묵하시지만,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과 배려가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많지만 조용히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지원군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가족들을 위해 재치 있는 이야기로 웃음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침묵의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서로 용기종기 모여 있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연주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가거든요!

요즘은 바빠다는 핑계로 온 가족이 모여 뭔가를 한 기억이 없어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홈파티를 하고 싶어요! 맛있는 요리도 직접 만들어 먹고, 각자 소원을 쪽지에 적어서 타임캡슐에 보관한 뒤 내년 같은 날 꺼내서 추억을 회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신장 관련 선천적 지병을 앓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기증자를 기다리는 10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고 이 기간 동안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결심했고, 지난 3월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어머니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며 사진을 찾아보니 마땅한 가족사진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와 찍은 추억한 장을 겨우 찾았습니다. 어무니, 아버지, 그리고 형! 앞으로도 서로를 아껴주고 많이 웃으며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사진도 많이 찍어요! 최근 들어 일상 속의 평범함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무열 팀장 신선마케팅팀



저희 가족은 엄마 한 명과 아들 세 명이예요! 물론 그중 한 명은 저예요 ㅎㅎ

가족의 성격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 같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여성스러웠던 아내가 지금은 험크처럼 강인한 모습으로 변했고, 첫째 아들은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성격이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딸처럼 애교 많은 귀염둥이로 변했답니다. 그런데 저만 그대로인 것 같아서 조금 의문이네요. 그래도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가족이 참 소중한데요!

저희 가족은 월급날이 있는 토요일마다 항상 외식을 즐깁니다. 평소에는 아내의 맛있는 집밥으로 배를 채우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가격 걱정 없이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며 '미식의 날'을 만끽하고 있어요!

가족은 저에게 매 순간 힘이 되지만, 특히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샤워를 하고 나온 듯 마음이 백지처럼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기분이에요.

지난해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가족과 함께 일주일 동안 다녀왔던 해외여행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내 지연이에게는 교회 권사님이지만 부처님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항상 이해해 주고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첫째 여준이에게는 올해 해외여행 계획은 내가 짜서 색다른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벌써부터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둘째 강준이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대학에 가면 군대를 안 가도 되니 노력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장재석 대리 기획인사팀



저희 가정은 저와 아내 그리고 이제 인생 한 달 차 딸 하진이가 있습니다.

하진이가 저희 품에 오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이전에 아내와 저는 세상의 모든 맛집과 명소를 섭렵하며 즐기는 쾌락의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세상의 재미를 서랍 속에 고이 접어두고 신생아 울음 감별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진이 가우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힘들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빠르게 분유를 대령하고 기저귀를 신속하게 갈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가 집안에서 태어난 첫 번째 손주라서 슈퍼스타처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진이의 극성팬인 양가 부모님은 매일 저녁 영상통화는 물론, 갖가지 음식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하진이를 보러 오시곤 합니다.

하진이는 진정한 스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ㅎㅎ

요즘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 외출이 어려워 꽃구경을 못해 아쉽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다 함께 여유로운 산책을 해보고 싶어요.

아이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인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아내를 보며

양가 부모님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나 싶어 새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며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내를 보며 애뜻한 감정이

마구 솟구치더군요. 하진이 가 울고 웃을 때 함께 울고 웃으면서 힘들어도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닭 특수부위까지 즐기는 울산 야키토리 명소

‘야키토리 명성’

삼계탕이나 닭백숙처럼 닭 한 마리를 즐길 수 있는 요리는 많지만, 내장이나 특수 부위까지 섭렵하기는 어렵다. 그에 비해 야키토리(닭꼬치)는 닭의 살코기는 물론 근위, 간, 연골, 대동맥까지 다양한 부위를 빠짐없이 맛볼 수 있는 매력적인 메뉴다.



<대표 메뉴>

- 야키토리 10종 모듬
- 토리나베
- 닭육수오니기리
- 생맥주/니혼슈/일본소주

<정보>

위치: 울산 남구 신정로30번길 19-6 1층전화
번호 :052-267-1570
편의 시설 및 서비스: 콜키지 가능(유료), 예약 가능, 주차불가



울산에서는 흔치 않은 일본식 닭 숯불구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 ‘야키토리 명성’이 있다.



비장탄으로 구운 야키토리 10종

야키토리 명성의 대표 메뉴는 야키토리 10종 세트이다. 매일 바뀌는 랜덤 구성으로 제공되며, 꼬치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간차를 두고 내어주는 세심한 배려도 인상적이다.

네기마(파닭꼬치)는 진한 타래소스가 듬뿍 발라져 있고, 첫 입에 육즙이 '팡'하고 터진다. 느끼할 수 있는 고기의 기름기를 파의 향긋함이 잡아주며, 담백한 뒷맛이 일품이다.

츠크네(닭완자꼬치)는 인기 메뉴 중 하나로 부드러운 완자를 노른자에 폭 찍어 먹으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입체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다른 가게에서는 보기 힘든 무릎연골도 이곳에서는 즐길 수 있다.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오독오독한 식감이 있어 씹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외에도 닭 목살, 간, 대동맥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닭의 다양한 특수부위가 야키토리로 재탄생해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해준다. 또한 간이 조금 짜거나 싱겁게 느껴질 경우 요청하면 기호에 맞게 조절해 주기도 하니 참고하면 좋다.

더 풍성하게 즐기는 일품요리

야키토리만으로 아쉽다면, 맛있는 요리들도 준비되어 있다.

치킨난반은 부드러운 닭튀김 위에 상큼한 타르타르 소스가 더해져,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맛을 선사한다.

닭육수 오니기리는 숯불 향 가득한 주먹밥을 진한 닭 육수에 담가 즐기는 메뉴로, 바삭하게 구운 밥알과 따뜻한 육수가 만나 예상 외의 조화를 이룬다. 구운 밥의 바삭함과 육수의 깊은 맛을 직접 맛보면 왜 인기 있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야키토리 명성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 자리도 있어, 봄날 저녁 술 한 잔 곁들이며 여유롭게 즐기기에 좋다. 야키토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함께해, 술자리 또는 식사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부드럽고 육즙 가득한 야키토리를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울산의 숨은 맛집 '야키토리 명성'을 강력 추천한다.



(회사 내 MZ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익명으로 담았습니다)

“MZ들의 근로자의 날, 솔직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MZ근로자들의 진지하면서도 귀여운(?) 소망들, 한 번 읽어주세요!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과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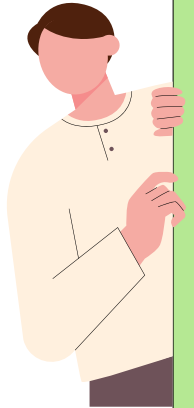
업무 관련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학 점수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 등을 지원해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제안 하나 더 드리자면, 매주 금요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캐주얼 데이'를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딱딱한 정장 대신 자유롭고 편한 복장으로 출근한다면, 분위기도 훨씬 유연해지고 팀원 간 소통도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세대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

모든 임직원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등 세대 구분 없이, 나와 내 부서의 편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다 같이 잘 되자!'는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당연히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에만 담아두기보다 한 번 더 배려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며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 진짜 가족 같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하림아~ 너도 MZ하고 생일도 축하해

생일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하림도 생일에는 쉬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감히 제안드립니다! 창립기념일 하루쯤은,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두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어떨까요? 다 같이 에너지 충전하고, 조직 문화도 끈끈해지고, 애사심도 쑥쑥 자라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기특하고 고생 많았을 우리 하림이의 생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날만큼은,! 하루 쉬어가는 게 어떨까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진 건가요?

최근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얼리 프라이데이(Early Friday)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시스템이라는데... 솔직히 너무 부러웠습니다. 왕복 2시간 넘게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생각하면, 이걸 복지 그 이상의 감동이었더라구요. 우리 회사도 얼리 프라이데이를 도입하면 직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업무 효율도 쑥쑥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연한 근무로 워라밸 지킵시다~!"



재택 근무,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시절 경험했던 재택근무가 가끔 생각납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덕분에 오히려 업무 집중도가 올라갔고, 효율도 좋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모든 업무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재택근무를 다시 도입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더 똑똑하게 일하고, 더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회사! 가능하지 않을까요? :-)

초보자도 할 수 있다!

회의 일정 조율도 영어로 척척!
(업무 일정 조율&협의하기)



<일정 조율&협의 기본 샘플>

Jane : Hey, Mark. We need to schedule a meeting for the new project.

(A) When would be a good time for you?

Mark : I'm available on Thursday afternoon or Friday morning.
What about you?

Jane : (B) Let me check with Julie and get back to you.

Jane : Dear Julie, I hope you're doing well. We need to schedule a meeting for the new project. Mark is (C) available on Thursday afternoon or Friday morning. Please let me know your availability.
Best regards,

(After writing the email)

Julie : Hi Jane, Friday morning works best for me.

(D) Let's schedule it for 10 AM.

Jane : Sounds good! (E) I'll send out a calendar invite.

Jane : 마크,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잡아야 합니다.

언제가 괜찮을까요?

Mark : 저는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이 가능합니다.
제인은요?

Jane : 줄리와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Jane : 줄리님, 안녕하세요. 새 프로젝트 회의를 잡아야 합니다. 마크는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메일 작성 후)

Julie : 안녕하세요, 제인. 저는 금요일 오전이

가장 좋습니다. 오전 10시에 잡죠.

Jane : 좋아요! 캘린더 초대해 드릴게요.

<일정 조율 기본 패턴>

(A), (B) 일정 확인 및 조율하기

When would be a good time for you?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What time would work best for you? (어떤 시간이 가장 괜찮으실까요?)

Are you available later this week for a quick meeting? (이번 주 후반에 잠깐 미팅 하실 수 있으신가요?)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제 일정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C) 가능한 일정 제안하기

I'm available on [day/time]. ([요일/시간]에 가능합니다.)

Would [day/time] work for you? ([요일/시간]이 괜찮으실까요?)

How about we meet on [day/time]? ([요일/시간]에 만나시는 건 어떠세요?)

I can make it at [day/time], does that suit you? ([요일/시간]에 가능하는데, 괜찮으실까요?)

(D), (E) 일정 확정하기

Let's schedule it for [day/time]. ([요일/시간]으로 일정 잡죠.)

I'll send out a calendar invite. (캘린더 초대 보내드릴게요.)

BONUS! 알아두면 좋은 숙어

Pencil in / Pencil you in (임시로 일정을 잡아두고 나중에 확정한다는 표현)

ex. Can I pencil you in for a meeting on Tuesday? (화요일에 미팅을 임시로 잡아도 될까요?)

Block off / Block out (특정 시간대를 일정에서 비워두거나 예약해두는 표현)

ex. I've blocked off the afternoon for our discussion. (우리 논의를 위해 오후 시간을 비워두었습니다.)

Touch base (간단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견이나 상태를 확인한다는 표현)

ex. Let's touch base later this week to finalize the details. (이번 주 후반에 다시 연락해서 세부 사항을 확정해보죠.)

Run something by someone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의견을 묻는 표현)

ex. I'd like to run a few dates by you; do you have a moment? (몇 가지 날짜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눈으로 보는 하림

2025년 4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우리 회사가 지난달 1일 신입사원 간담회를 열고
인턴기간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나눴다.



차대진 정읍공장장이 지난달 3일 지역경제
발전엔 기여한 공로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 4일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식목일을
맞아 본사 조경주차장에 철쭉, 편백, 꽃나무 등
7,150주의 나무를 식수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5일 임직원 가족 초청 투어를
진행해 신선한 닭고기의 비밀을 선보였다.



지난달 8일 우리 회사는 이달의 하림인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10일 SAP PI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14일 우리 회사는 충청지점
천안중앙유통등을 방문했다.



우리 회사 직장선교회인 신우회 및 천사합창단이
지난달 17일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 부활의 기쁨,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우리 회사 가공2공장이 첫 번째
PAC 시상을 열었다.



지난달 21일 우리 회사는 성과관리, 업무방식의
변화에 대한 외부 강사 특강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3, 24일 생산반장,
사업부장 교육을 진행했다.

하림과 함께한 사람들

0403

ISO 심사단



0404

축산전문지 기자단
미디어데이

0409

아워홈 영양사 신입사원



0410

이마트 냉동팀



0411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회원



0414

알렌하림



0415

가나다-농촌지도자회



0415

한남대학교



0416

박성수 익산경찰서장



0416

신한은행 김완택 본부장



0418

기자단 팸투어



0421

글로벌에듀



0423

GS슈퍼 프로모션지원팀



0423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4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 광주광역시 4-H본부,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회원, 아워홈 영양사, 부사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3,699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생 스토리>

HARIM PRIME 대리점 대표단, 해외 워크숍 통해 화합·상생 다짐

우리 회사는 지난달 16~19일 PRIME 대리점 26곳 중 16곳 대리점 대표와 함께 해외 워크숍을 다녀왔다. 워크숍은 일본 FABEX 식품 박람회, 현지 시장조사(동경 츠키지 재래시장, 동경 일대 대·중·소형 마트, 마트채널, 델리), 현지 식문화 체험(닭고기 요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5곳의 대리점 대표의 소감을 들어본다.



(주)에덴 김항수 이사

프라임 대리점 3년 차, 이번 워크숍은 일본의 식문화 그 중 닭고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일본의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을 둘러본 결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백숙과 치킨 등 한 마리 그대로 닭을 즐기는 것이 아닌 주로 꼬치구이(아키토리), 닭 다리살 튀김(가이라아게), 다진 닭고기(스쿠네) 등 부분육 형태로 즐기는 식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꼬치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국내 마트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가슴 연골, 무릎 연골, 닭간 등도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산에 비해 가격대가 비싸고, 닭고기 크기 역시 국내보다 큰 닭고기(20호 이상)들이 주를 이뤘다.

포장 방식도 달랐는데, 일본의 경우 일부 제품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스티로폼 트레이 포장되어 있었다. 프리미엄 제품도 트레이 재질과 디자인이 조금 다를 뿐이었다. 일부 열성형 진공 포장기 방식의 포장도 필름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 국내처럼 닭고기가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일본 워크숍으로 인해 닭고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 더 생겼다. 닭고기가 일본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지만, 사육·생산·포장·유통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우수한 육계 산업 시스템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세 경영 입장인데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정보, 고충 등을 나누며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하림에 감사하다.

동물농장(신) 김동식 사장

하림 워크숍을 통해 일본은 처음 방문하게 됐다. 일본의 마트 5군데, 시장 2군데를 방문해보니 상당히 깔끔한 편이었지만, 우리나라와 하림의 닭고기 문화가 더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일본의 부위별 판매 문화 등 생소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배울 점도 있었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다.

여러 대리점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다른데, 이번 워크숍에 참여해서 몰랐던 부분들과 소통하고 장단점을 공유하면서 개선점도 찾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여러 부분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워크숍을 준비해주신 하림에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 프라임 대리점들과 국내에서라도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산이나 간담회 등 운영방식 관련 회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주)정푸드 정세하 실장

하림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처음 참여해봤는데, 해외에서 같은 업종에 대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신선했다.

일본의 전통시장부터 마트, 프리미엄 마트 등을 볼 수 있게 워크숍 프로그램

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닭고기 문화를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워크숍에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대리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배우는 것도 많아 도움이 됐다. 같은 계열사들도 잠깐 만나면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기 마련인데, 3박 4일 동안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서로의 궁금한 점들은 질문하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림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계열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이나 편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주)네오포드 시인건 사장

유통을 맡고 있다 보니 워크숍 내내 관심 있는 분야에 주목해서 관람을 이어갔다. 치킨 코너에서도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보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 시장, 마트 등에서는 즉석코너와 pop(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구매시점 광고)에 관심을 두고 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브랜드(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포장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체 포장 방식을 이어가고 있어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세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자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전 워크숍에서 만났던 분들과 다시 만나 반갑기도 했고, 이야기 못했던 새로운 분들과 사업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참 좋았다.

하림 선진지 견학을 기회로 여행을 통해 가기 어려운 곳들을 보고 느낄 수 있어 좋았다. 프라임 대리점 입장에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힘든 시기에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양지푸드 염규영 실장

일본 식품박람회 FABEX에 참관해 디저트, 술, 식품기계 등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선진국의 기계, 포장 트레이 등을 보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

현지 마트, 시장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일본의 부분육 문화, 포장 등을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닭고기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의아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우리처럼 수입육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수입육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산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수입육에 대한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가벼워지는 지갑 만큼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 늘고 있다. 가끔류 선두기업인 하림이 국내산 닭고기가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국내에서도 이런 스킨십이 자주 있었으면 한다. 현장에서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각자 바쁘고 전국에서 활동하다 보니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분기별로 소통의 시간이 생기길 바란다.

똑! 소리 나는 하림 용어 사전

“**닭이 1kg 자라려면,
사료는 얼마나 들까요?**”

사료요구율 FCR에 대해서 알아보자!

FCR

FCR(Feed Conversion Ratio, 사료요구율)이란?

닭 1kg의 체중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사료의 양을 말해요.

FCR 계산법

FCR = 소비한 사료량(kg) ÷ 몸무게 증가량(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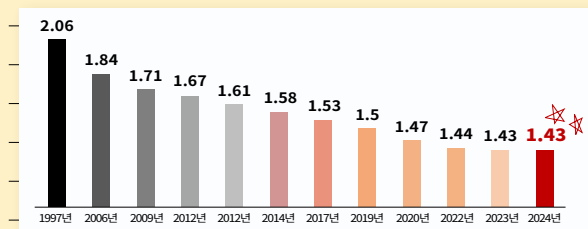
예시: FCR 1.6 → 체중 1kg 증가에 사료 1.6kg 소요

FCR 값이 낮을수록 사료 효율이 높고,

사육 비용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육계의 FCR은 1.6~1.8 수준입니다.

하림의 FCR : 1.43



2024년 기준, 하림은 **FCR 1.43**을 달성하며,

글로벌 최상위 수준인 1.4~1.45에 부합하는

업계 최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FCR을 0.1만 개선해도 연간 약 120억 원의 사료비 절감이
가능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지표입니다.

하림은 농가와의 협력, 현장 중심의 지속적 개선 활동을 통해
전방위적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 왔습니다.

수익성, 지속가능성, 상생이라는 3대 가치를

FCR 관리로 구현하며, 육계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FCR에 대한 이해 속속 되셨죠?!

새내기자 | 이민정 대리

이달의 Quiz 퀴즈풀고 선물세트 받자!

닭 숨은그림 찾기

귀여운 농장 한가운데, 어딘가에 닭들이 숨어 있어요!
당신의 매의 눈으로 숨어있는 **닭 4마리**를 찾아보세요!

제 227호 추첨자

김*진 화성시 동탄대로
손*은 전주시 덕진구
김*일 군산시 미장남로
이*련 용인시 수지구

정답 제출 방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세트'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정답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771@harim.com

가정의 달,
따뜻한 봄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하림으로 놀러 오세요~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063-860-2422 www.harim.com